

:: 기자칼럼

병원 - 환자 의사소통 노력을!

매년 적잖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의료진에게 그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의료진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돌발 상황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일반 국민의 의학적 '지식'이 일천했던 과거에는 대부분 병원이나 의료진의 책임보다는 불가항력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모든 매체에서 연일 엄청난 양의 의학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국민은 점차 과거의 '의학 문맹자'를 탈피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네티즌이라는 든든한 응원군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과 의료진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거나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여론의 못매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얼마 전 한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이른바 '순천향 병원 사태'가 그것이다. (병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미 완전히 공개됐기 때문에 그냥 실명으로 다룬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여중생이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로비에 시신을 놓고 농성을 벌였다. '방치된' 시신은 부패했다. 유가족은 병원의 요구로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죽었는데, 흥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격하기는 했지만 유가족의 대응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독 이 사건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까? 바로 병원이 '민심'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 글·김 상 훈
동아일보 기자

농성장면과 부패된 사진, 경찰과의 몸싸움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고스란히 인터넷에 올려졌다. 유가족의 흥분과 분노는 병원과 경찰의 '폭압적 대응' 때문에 더욱 부각됐다. 물론 병원도 경찰 투입 여부에 대해 많이 고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투입으로 네티즌은 '약자'인 유가족의 편에 섰다. 네티즌들은 병원의 대처방식에 분노하며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의료진은 '인간 이하의 의사들과 병원'으로 전락해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질'은 사라져버렸다. 여중생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앞으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탐색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논의는 쑥 들어간 채 서로에 대한 비난만 난무한 것이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봄을 맞아 병원 로비에서 미술전시회를 가졌다. 현직 대학교수와 유명화가들이 내놓은 작품 100여 개가 전시돼 환자와 가족, 일반 시민에게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준 것이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는 투병의지와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일반시민에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런 행사가 앞으로 더욱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만 필자가 병원에게 바라는 점은, 병원의 고유 기능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다. 병원의 고유 기능은 진료행위를 통해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홍보성 행사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필자 또한 병을 낫게 해 준 의사와 병원이 가장 고맙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는 의사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고두고 그 의사와 병원을 원망했을 지도 모른다. 비겁할지 모르지만, 이런 심정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다.

필자는 여중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다. 유가족들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응할 것을 권하고 싶다. 병원과 유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풍경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이 없다. 의료진과 병원은 "우리 책임은 없다. 우리 할 만큼 했다"는 판에 박힌 해명만 내놓고, 환자 측은 "병원에서 무조건 잘못했다"며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갈등과 의혹만 더 커질 뿐이다.

이제 터놓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절충점을 찾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해 그게 가장 현명한 해법이다. **KHA**